
2018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명칭 : 일본의 재해·재난 관리체계 및 재해현장
체험연수
- 연수기간 : 2018년 1월 22일(월) ~ 25일(목) / 3박4일
- 연수인원 : 12명
- 연수지역 : 오사카/고베/교토

◆ 연수목적 및 취지

본 연수는 최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태풍, 홍수 등 대형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험 진단이 새로이 제기됨에 따라 대덕구의 재난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여 유사시 완벽한 대응조치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상황대처 최적방안을 모색하여 대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 중점 연수내용

- ▶ 지진, 태풍, 홍수,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최근 세계적 공통현상으로 빈발하는 각종재해·재난의 실상과 관리체계의 종합적 연구탐색
(행정관리조직 및 기능, 관련법규, 행정지원체계, 민·관 협조체계 등)
- ▶ 일본의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조를 통하여 피해현장 직접방문 및 당시 상황의 실감있는 상황 인식, 사고당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문제점과 장·단점의 비교연구, 피해복구 과정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대안모색 및 탐구 등 실질적인 비교연구와 경험인식
- ▶ 주민 방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전개과정 파악
- ▶ 조기경보체계 등 기타 비상재해시의 조직체계 및 종합방재정보시스템 등 병행연구

일 자	내 용
<제1일차> 1/22(월)	◦ 김포국제공항 08:30 출발 ◦ 오사카 간사이공항 10:10 도착 ◆ 공식일정 1 - 오사카부 쓰나미·해일 스테이션 - 쓰나미 체험, 바다·강 재해관련 체험시설 견학 ◆ 공식일정 2 - 오사카시립 아베노 방재센터 -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관리센터 견학
<제2일차> 1/23(화)	◆ 공식일정 3 - 교토시 도시계획국 건축지도부 건축안전추진과 -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해 브리핑 청취 ♣ 교토 문화견학 - 금각사 ◆ 공식일정 4 - 오사카부청 위기대책과 - 오사카현의 위기대책시스템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 오사카 문화견학 - 오사카성
<제3일차> 1/24(수)	◆ 공식일정 5 -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관 - 사람과 방재의 미래센터 방문 ◆ 공식일정 6 - 고베시청 도시계획총국 1995년 고베지진 피난민 이주 현황, 시영주택 견학 ◆ 공식일정 7 -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 - 한신대지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 ◆ 공식일정 8 - 효고현청 기획현민부 재해대책과 ♣ 오사카 문화견학 - 난바, 도톤보리
<제4일차> 1/25(목)	◆ 오사카시 도시 기반시설 견학 ◦ 김포국제공항 13:00 도착

공식방문 1 : 오사카부 쓰나미·해일 스테이션

- 일시 : 2018. 1. 22.(월) 14:00
- 장소 : 오사카시 니시구 에노코지마 2-1-64
- 담당자 : 총괄매니저 야마모토 고이치
- 방문활동내용 : 쓰나미·해일 재해관련 체험시설 견학
쓰나미·해일센터에 대한 브리핑 청취
쓰나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청취
지진, 쓰나미 발생시 대책법 청취
쓰나미 재해체감 시어터 체험

「쓰나미·해일 스테이션」은 오사카부 니시오사카 치수(治水)사무소가 소관하는 방조제나 수문의 쓰나미·해일 방어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재동」과 부민의 방재의식을 제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전시동」을 병설한 시설이며, 전시동은 예전에 오사카를 덮친 해일이나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오사카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해·남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지진, 쓰나미 발생시 대응책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널리 개방된 시설이다.

< 토론 및 시사점 >

쓰나미·해일 스테이션은 150~200년 주기로 찾아오는 쓰나미에 대한 대비 및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오사카시에서 건립해 지난 2009년 9월 개장했다. 이곳은 오사카거리를 재현한 모형을 통해 오사카의 ‘바다보다 낮은 도시’에 대한 지형적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해일·재해 체감극장을 통해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예상되는 피해규모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해일대책 교육과 쓰나미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해일이나 지진을 겪지 못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거 참혹한 재난현장을 실제 기록으로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하게 한다. 실제 재난을 통해 교훈을 전하는 개념이다. 이곳의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해일피해 터널’이다. 높은 파도를 모형으로 만든 터널에서는 오사카의 3대 태풍의 피해사진과 뉴스영상, 수몰지역을 재현한 세트 등이 해일재해의 참상을 알려주고 있다. 스테이션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데, 관람객이 마치 피해지역에 빠져들어 ‘이재민’이 된 듯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내부 대강당 앞쪽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 피해를 보도한 신문이 지금까지도 전시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큰 규모의 영상관을 통해 지진상황을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체험하도록 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공간이다. 전면과 좌우측면, 바닥면 등 4면이 하나로 연결된 상영관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공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인데, 4명의 가족이 회사나 쇼핑몰 등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연간 약 3만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하루 평균 100명 정도가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80세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했거나 또는 자기 이전의 모든 세대들이 겪었던 재해를 느끼고 체험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앙을 대비해 소중한 교훈을 얻고 있다.

○ 활동사진



△ 오사카부 쓰나미·해일 스테이션

공식방문 2 : 오사카시립 아베노 방재센터

- 일시 : 2018. 1. 22.(월) 15:30
- 장소 :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3-13-23
- 방문활동내용 : 지진, 화재 재해관련 체험시설 견학
지진, 태풍, 홍수 등 오사카시 재난관리체계 브리핑 청취

진도 7의 지진체험,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소화, 연기속에서의 탈출체험 등과 같은 리얼한 훈련을 통하여 화재나 지진에 대한 지식과 방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설. 가정에서 쉬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가상체험을 비롯하여, 집에서의 탈출, 재해를 입은 도시 등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동식 펌프를 사용한 소화체험 등도 배울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국에 단 10대만 존재하는 기진(起震)장치를 사용하여 고베 대지진 등의 지진을 재현하고 있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 지진대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며 배울 수 있는 시설이다.

< 토론 및 시사점 >

아베노 방재센터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거리를 일련의 흐름 속에서 피난·체험 함으로써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시 필요한 행동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시민의 방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시설이다.

특히 각종 이벤트나 강습회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배포할 안내서를 9개국어(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로 만들어 외국인에 대한 대응도를 높였으며, 외국인 또한 휴대폰과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기상·지진·쓰나미에 대한 정보, 재해시의 피난 권고와 지시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는 방재넷을 운용한다.

○ 활동사진



△ 오사카시립 아베노 방재센터

공식방문 3 : 교토시 도시계획국 건축지도부 건축안전추진과

○ 일시 : 2018. 1. 23.(화) 10:00

○ 장소 : 교토부 교토시 나카교구 테라마치오이케 488

○ 담당자 : 건축안전추진과 카와구치 히로시 과장, 시마자와 다카히로 계장

○ 방문활동내용 :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 대책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건축물의 안심·안전 대책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건축물 등의 지도, 노후위험 건축물 대책 추진, 특수 건축물 정기 보고, 내진 개수·촉진 계획, 내진화 지원 사업의 추진, 분무 석면제거 등 지원사업, 건설 리사이클법의 신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브리핑내용

교토시를 지진·재해에 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교토시 건축물 내진·개수 촉진 계획(이하 "이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도시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전 계획의 기간이 종료하여, 역사 도시인 혼이치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계속 발전하고 시내 건축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으로 「교토시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 계획 : 교토에 숨쉬는 「사람」과 「마을」의 "생명" 지키기」를 2016년 3월에 책정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이 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재해시 초동에 중요한 거점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토부와의 연계하에 길가 건축물의 내진진단을 의무화하는 도로를 지정하고 그 길가 건축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1. 계획기간 : 2016년부터 2025년 말까지(10년간)

2. 계획의 기본개념 : "교토에 숨쉬는 「사람」과 「마을」의 '생명' 지키기"

도시 특성과 진화의 촉진을 위한 과제를 근거로 사람들의 왕래를 조성하면서 보다 진화한 건축물을 만들어 교토의 「사람」과 「마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계획의 목표 설정

- 주택

주택의 목표 설정	
지표	목표 및 목표연차
내진화율	90%(2020년도 말) ⇒ 95%(2025년도 말)
마을공동 학군수	100학군(2020년도 말)

- 특정건축물

특정 건축물의 목표 설정	
지표	목표 및 목표연차
내진화율	90%(2020년도 말) ⇒ 95%(2025년도 말)

- 시보유 건축물

시 보유 건축물의 목표 설정	
지표	목표 및 목표연차
내진화율	95%(2020년도 말) ⇒ 100%(최대한 빨리)

4. 주요추진시책

- 「마을 장인 사업」 등 리모델링 공사 등에 맞춘 진화에 대한 지원
- 기존 주택의 에너지절약 리폼지원 사업 등 다른 지원제도와 패키지이용 촉진
- 빈집 소유자와 진화의 필요성 인식이 적은 소유자·거주자 층(고령자나 전세경영자 등) 등 지원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원
- 밀집 시가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진화지원의 충실
- 보전해야 할 거리와 건축물에 대한 내진지원의 충실
- 내진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주체가 된 내진상담, 지역밀착형 이벤트 개최 등 시민과 전문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 방재마을 만들기 활동과 연동한 진화의 보급·계발
- 내진네트워크와 교토 안심거주센터 등을 통한 시민에게 알기 쉬운 정보 발신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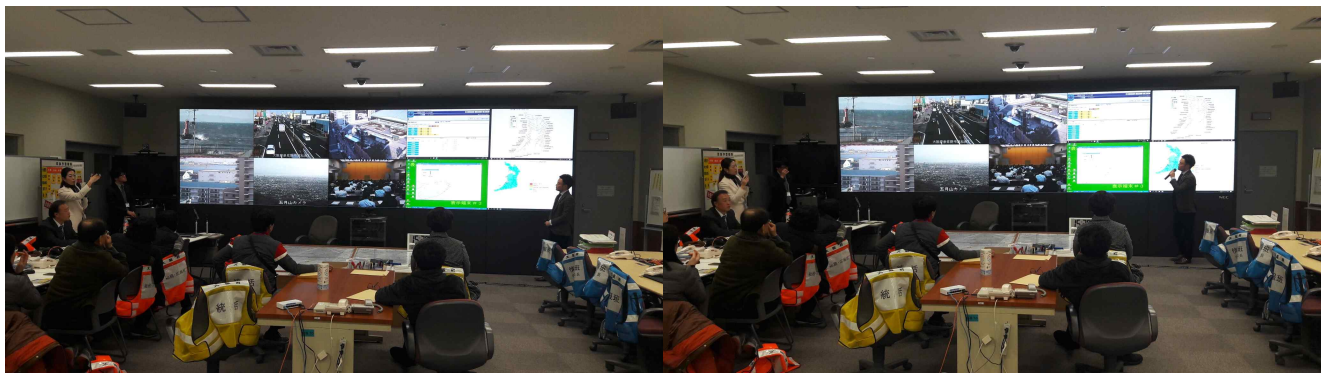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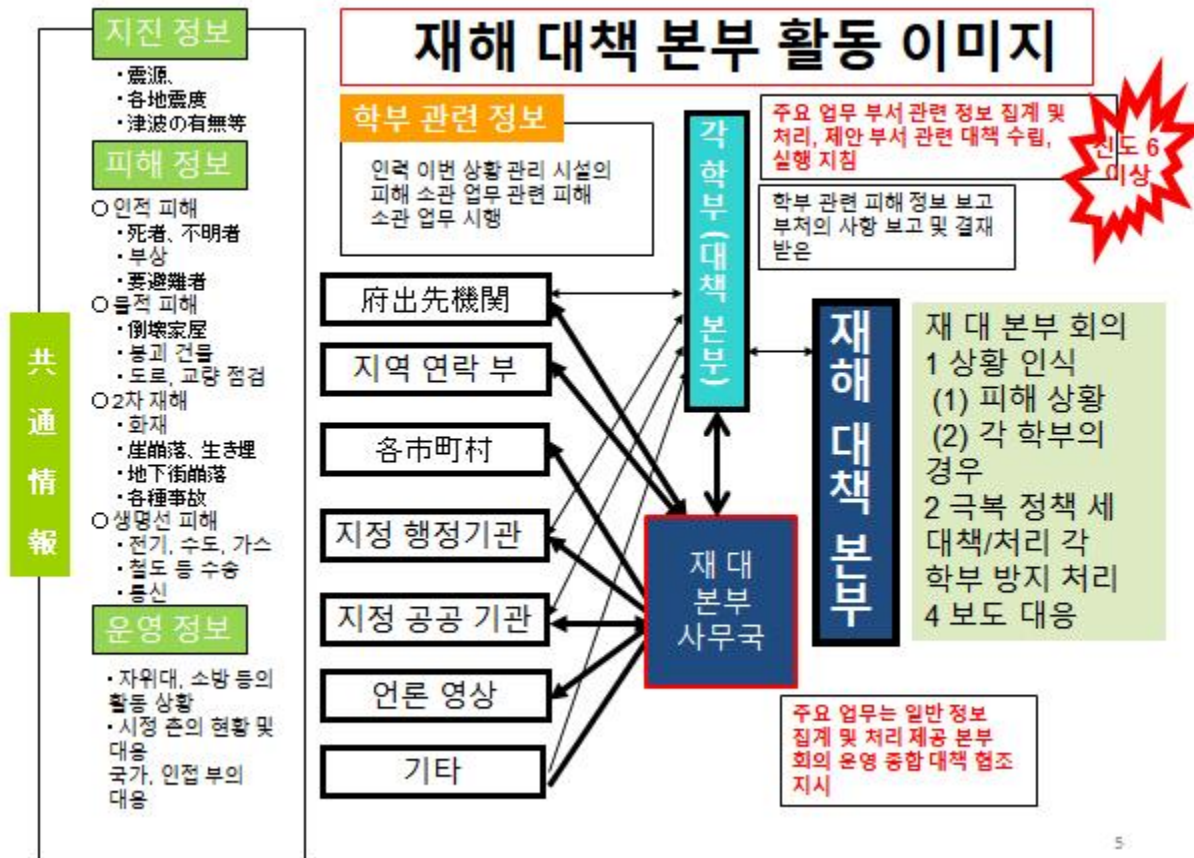
△ 교토시 도시계획국 건축지도부 건축안전추진과

공식방문 4 :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방재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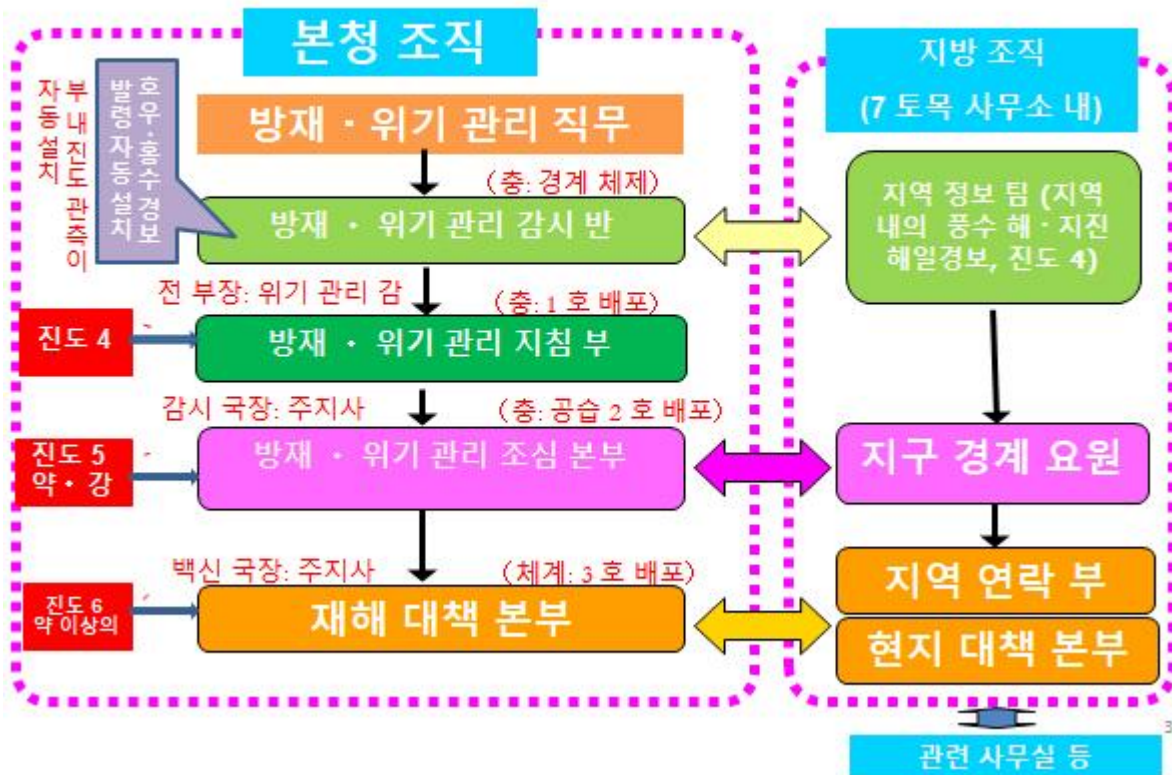
- 일시 : 2018. 1. 23.(화) 14:30
- 장소 : 오사카부 추오쿠 오테마에2초메
- 담당자 : 방재기획과 가와가미 주사 진행, 야츠기리 총괄
재해대책과 사카이 과장, 후지와라 총괄, 후쿠오카 부주사
- 방문활동내용 : 브리핑 및 상호 의견교환

※ 오사카부의 재해·재난 초기 시의 방재체계





재난 등 응급 조치 실시 조직



○ 방재 위기 관리 근무 체계

1 당직

2명 1조 (1인, 위기 관리 대책 실 직원)

2 근무 시간

1) 평일: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

2) 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

3 업무

풍수 해, 지진, 대형 사고 등 위기 상황의 정보 수집, 전파 등

※ 재해 대책 대기 요원 (오 청사 근처에 대기)

(부지사, 위기 관리 감, 감, 위기 관리 실장, 위기 관리 실 과장, 동 참사 의로 대책 과장, 도로 환경과장, 하천 환경 과장 등)

○ 災害時等参集体制

	경보 체계	非常1号配備	非常2号配備	非常3号配備
본 청사	7名	251名	744名	全員
현지 기관	7名	88名	234名	

※또한, 야간・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 후 나이 하나 시에서 진도 5 약 이상 관찰 된 경우에는 미리 지정 된 비상 방재 추진 위원 (417명) 지정 장소 (府庁 방재 정보 센터・시립・오사카부 광역 방재 거점 등)에 집합 한다.

4

방재 센터



방재 센터 B
방재 관계 기관의 활동 협조 및 조달, 수송 등 후방 지원 활동을 실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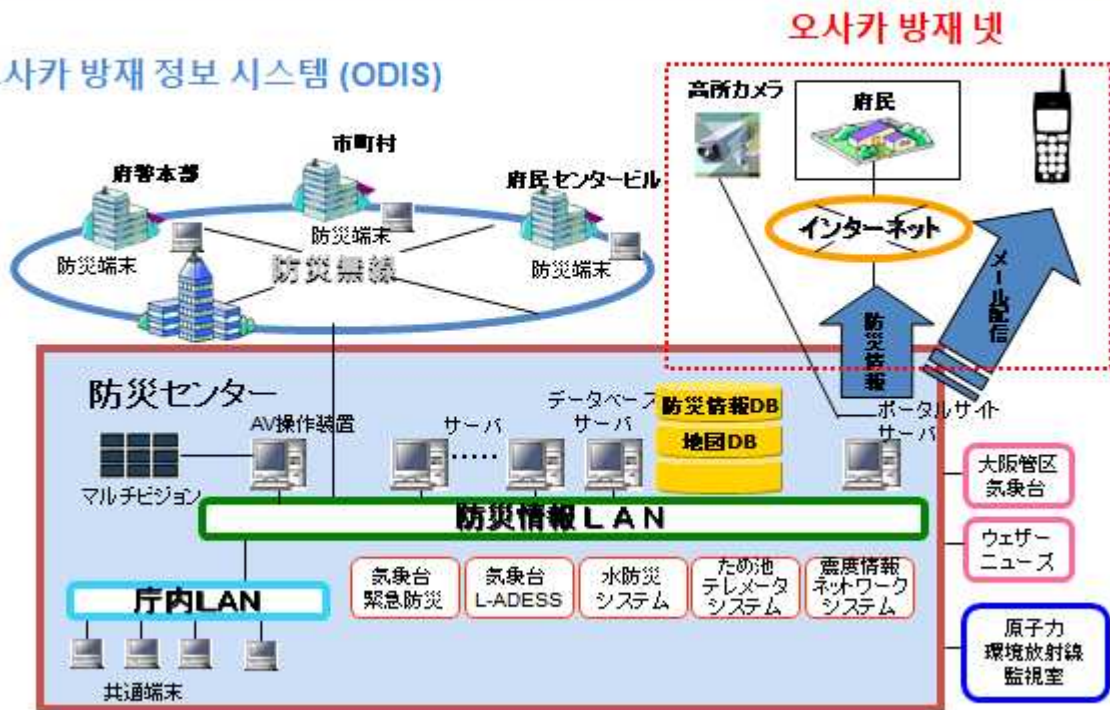


방재 센터 A
피해 정보 등의 수집 및 그림 등을 이용한 정보 공유를 실시 하 여 재해 대책 수립 등을 수행 한다.

5

오사카부의 방재 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요

오사카 방재 정보 시스템 (ODIS)



< 토론 및 시사점 >

오사카부는 인구 88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이며 그 밑에 43개 시·정·촌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일본 면적의 200분의 1, 인구는 8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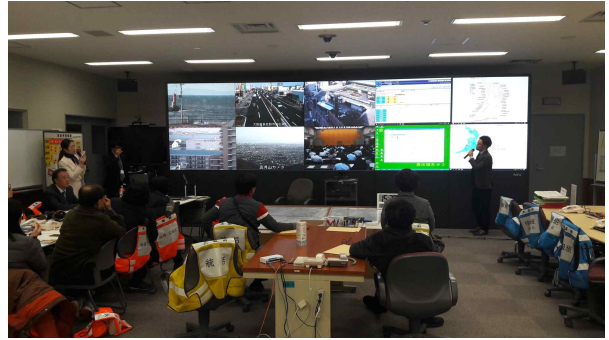
-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24시간 가동

오사카부는 재해를 대비해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직원 2명이 위기관리실을 지킨다. 폭우의 예측,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600~1,000명으로 증원하며, 시·정·촌과 경찰, 소방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까지 재해대응에 나선다. 여러 가지 재해에 대응해 오사카부청이 정비해서 갖고 있는 매뉴얼은 약 60종류다. 또 관계기관과 식료품의 공급 등 약 70종류의 방재응원협정도 체결했다. 자원봉사자 단체의 대표자도 재해대책조직에 배치해 연대한다.

- 오사카부는 피난장소로 약 2천500개소, 쓰나미 피난빌딩은 약 1천800개동을 확보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난식으로 약 265만식이 준비돼 있다.

“큰 재앙이 왔을 때 100% 소멸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활동사진



△ 오사카부청 위기관리실 방재기획과

공식방문 5 : 고베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관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일시 : 2018. 1. 24.(수) 09:30
- 장소 :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와키하마 가이간도오리 1-5-2
- 방문활동내용 : 한신·아와지 대지진 자체의 실상과 교훈을 전문으로 하는 지진교육시설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관에 대해 브리핑 청취

- 한신·아와지 대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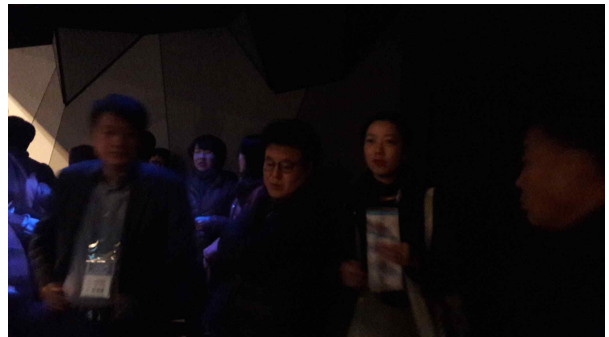
1995년 1월 17일, 인구 350만명 정도가 밀집해 일본의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아와지 북부부터 고베시 및 한신지역의 직하에서 내륙·도시 직하형 지진이 발생하여 전기, 수도, 가스, 교통기관 등의 라이프라인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 다수의 주민이 피난소에서 어려운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낡은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붕괴, 화재가 발생

※ 사망자 6,434명, 부상자 43,792명, 주택피해(전괴·반괴) 249,180동

-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후세에 계승해 역사를 바꾼 중대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에 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감에 공헌하는 시설이며 특수촬영과 CG를 구사하여 지진발생의 순간을 체험, 대형영상과 음향으로 지진의 엄청난 파괴력을 체감할 수 있는 간사이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이다. 부흥의 과정, 당시의 생활이나 거리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로 해설하고 있으며 실험이나 게임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나 방재·감재(피해축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 활동사진



△ 사람과 방재미래센터

공식방문 6 : 효고현 고베시청 도시계획총국

- 일시 : 2018. 1. 24.(수) 11:00
- 장소 : 효고현 고베시 가노정 6-5-1
- 담당자 : 기도 치하야 주사
- 방문활동내용 : 1995년 고베 지진 피난민 가설주택의 현재모습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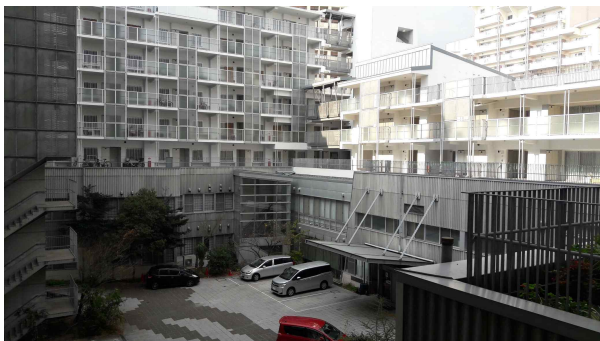
한신 대지진때 가설주택에 온 사람들 중 45%가 원거주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했다. 도시로 갈수록 임대료가 많아지고, 가설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노인, 특히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연수입도 매우 낮았다. 일본에서 한신 지진 이후 가설주택에서 부흥공영주택 이주자들을 조사했을 때,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30%도 되지 않았다. 70%가 연수입이 300만엔 이하였으며, 연금생활자가 많고, 재해부흥공영주택의 고령화율이 42.9%에 달했다. 당시 일본 전국 고령화율이 17%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난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되는 이들 가운데 고령자와 같은 재난 취약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신 대지진 이후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2중 주택대출(이중주택론) 문제였다.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르는 대출 상환이 미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면 또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재난 가구에 2중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재난약자가 장애, 고령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재해약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 인식은 집은 개인 자산이라서 국가가 보조해 주진 않는다. 한신·아와지 이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은 300만엔까지는 지원해주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재난으로 인한 제도가 잘 정비되었다고 평가 받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법체계를 갖추는데 12년이 걸린 것이다.

한신 대지진발생 15년 후인 2000년에 조사했을 때 효고현 이외 지역으로 주민들이 피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었는데,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의 수가 상당했다. 지진 발생 2년 후부터는 행정기관도 효고현으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이주한 곳에서도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돌아오기 쉽지 않다. 당시에 이와 관련된 연구 조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5만명 정도가 광역피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 피난을 멀리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주택과 관련한 답이 절반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도시형 재난의 발생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활동사진



△ 고베 지진 피난민 가설주택의 현재모습 견학

공식방문 7 :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

- 일시 : 2018. 1. 24.(수) 13:15
- 장소 : 고베시 기타구 히요도리 기타마치3-1
- 방문활동내용 : 한신·아와지 대지진 자체의 실상과 교훈을 전문으로 하는 지진 교육시설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재해를 입은 현장 견학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메리켄 부두의 일부(안벽 60m)를 그대로 보존하여 견학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공원이며 또한 고베항의 피해 상황, 복구과정 등을 기록한 모형이나 영상, 사진 패널 등도 전시하여 지진의 처절함을 가까이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

< 토론 및 시사점 >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는 1995년 발생한 진도 7의 한신대지진을 기억하고자 지은 공원이다. 과거 대지진으로 무너진 도로 등을 그대로 보존해, 사람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는 대지진의 슬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이 담긴 곳이다. 과거 대지진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기에, 남은 자들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메모리얼 파크를 짓고, 현재도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방문8 : 효고현청 기획현민부 재해대책국 재해대책과

- 일시 : 2018. 1. 24.(수) 14:15
- 장소 :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시모야마테도오리 5-10-1
- 담당자 : 히사마츠 시로 과장, 키무라 마사히로 주사, 나바 교코 주사
- 방문활동내용 :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해 대응대세 및 방재 관련 세미나
- 효고현 방재대책

- 24시간 감시·대응 체제 운영

직원의 숙소 및 일직 체제뿐만 아니라 재해 대기 숙소에서 지정요원 업무요원이 대기체제를 채택하여 24시간 감시·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효고 방재넷의 운용

방재행정 무선, 홍보차량 등 기존의 정보전달 수단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메일기능과 홈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재해발생시 등의 긴급시 긴급 기상정보(지진, 해일 기상경보, 특별경보, 토사 재해·경계 정보, 하천 홍수예보, 토네이도 주의 정보 등)나 피난정보 등을 재빨리 현민·시민에게 발신하는 시스템입니다. 평상시에는 방재 마음가짐, 방재훈련 안내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방재 정보를 게재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기상경보 및 긴급정보 등의 내용을 12개 언어(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자동 번역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효고 E넷(Hyogo Emergency Net)」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정보 등이 발신되면 업데이트 통지 메일(영문)을 송부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페이지에 링크 유도

- 국민보호 계획의 추진

현의 국민보호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새로운 노력과 국민보호 공동훈련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국민보호 계획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국민보호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국민보호 사안 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

- 방재훈련 실시

현민의 방재 의식의 고양, 방재 관계기관 상호협력 및 광역 지원체제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계 방재 기관, 지역 주민·학생, 자주 방재조직, 사업소 등의 참여와 참여·체험 등 실천적인 방재 훈련을 실시

○ 활동사진



△ 효고현청 기획현민부 재해대책과

1. 오사카부 쓰나미·해일 스테이션 보도자료

潮ステーション Tsunami Museum 大阪海啸防災에서 Ichiro Nakamura님과 함께

1월 22일 오후8:29 · 오사카 시 · 📍

大田広域市の大徳区区議会の金(Kim, Kum a) 副議長を筆頭に、大徳区区会議員の李 (Lee Kum ja) 議員、金 (Kim, Su yeon) 議員、ソウル市議会から議会運営委員会委員長のOh, Hyun Jeong 議員をはじめ、総勢15名の地方議会議員団が来館されました。随行は韓国産業技術...

계속 읽기

전역 보기



2. 총평

- 완벽한 재난방재 시스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신념, 수많은 재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재난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해야 함
-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음
- 민원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로의 행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행정, 자치를 구현하는 행정을 본받아야 함